

한국안광학회 - 이달의 학술논문 소개

*본 논문은 한국안광학회지 제26권 4호(2021년 12월 31일 발행) 게재 논문으로 저자는 학회의 동의하에 요약 발췌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에 있습니다.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에 관한 연구

이옥진 · 이승원 · 장재필(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 **목적** :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방법** : 안경사 99명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110명, 총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 **결과** : 안경사들이 생각하는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09 ± 0.66)가 재학생(4.06 ± 0.68)보다 높았으며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 감성지능역량의 필요도가 높았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았다. 협업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관리역량의 필요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남성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13 ± 0.72)가 여성(4.08 ± 0.52)보다 높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 협업역량의 필요도가 높았다. 창의역량 필요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재학생은 여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15 ± 0.64)가 남학생(3.92 ± 0.71)보다 높았으며 협업역량과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 및 개발역량 필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학년별로는 2학년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협업역량과 대인관계역량, 자원관리역량, 자기관리 및 개발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01$).

◆ **결론** : 안경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안경사와 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서론 -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COVID-19는 교육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역량이라고 하며 핵심역량이란 어떤 환경과 변화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질, 능력을 의미한다. 핵심역량은 생애에 걸쳐 길러지고 활용되는데 평생학습사회의 등장과 함께 이미 OECD와 선진국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진미석, 2016).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은 2006년부터 국가주도형으로 연구되었으며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논의 되었다. 실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나 대학 재학생, 졸업생보다 핵심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의 핵심역량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핵심역량의 강화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안경사 직무와 관련하여 서재명 등(2020)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역량과 협업능력, 기계와의 소통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안경사들에게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옥진과 박준식(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안경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분석해 보고 개선, 보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안경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경사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알아보고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

서울, 경기지역의 안경원과 안과에 취업 중인 안경사 99명과 경기도 소재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 110명, 총 209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초핵심역량에 관한 설문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고 수거된 209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안경사 대상의 설문 문항은 총 39문항, 재학생 대상은 총 38문항으로 작성되었는데, 일반적 특성 3~4문항(안경사 4문항, 재학생 3문항), 안경사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

안경사의 성별은 남성 65.7%, 여성 34.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20대 34.3%, 30대 14.1%, 40대 29.3%, 50대 이상 22.2%로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 39.4%, 5~9년 26.3%, 10~19년 16.2%, 20년 이상 18.2%로 5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안경사와 재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차이 비교

기초핵심역량 항목	안경사	재학생	t	P
	M±SD	M±SD		
창의역량	4.08±0.72	3.90±0.70	1.729	0.085
협업역량	4.31±0.73	4.01±0.88	2.695	0.008*
의사소통역량	4.46±0.74	4.23±0.78	2.155	0.032*
대인관계역량	4.16±0.79	4.02±0.74	1.266	0.207
문제해결역량	4.11±0.81	4.06±0.77	0.493	0.623
자원관리역량	3.70±0.92	4.02±0.81	-2.623	0.009*
자기관리 및 개발역량	4.15±0.78	4.11±0.74	0.380	0.704
직업윤리역량	4.38±0.77	4.24±0.79	1.311	0.191
지식정보활용역량	3.99±0.77	4.08±0.77	-0.822	0.412
글로벌역량	3.53±0.94	3.90±0.82	-3.000	0.003
감성지능역량	4.16±0.87	4.14±0.78	0.170	0.865
합계	4.09±0.66	4.06±0.68	0.316	0.752

*p<0.05

2.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1) 안경사와 재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차이

기초핵심역량 필요도의 평균은 두 집단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았고 안경사(4.09±0.66)가 재학생(4.06±0.6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는 의사소통역량(4.46±0.74)이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역량(3.53±0.94)의 필요도가 가장 낮았다. 재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는 직업윤리역량(4.24±0.79)이 가장 높았으며 창의역량(3.90±0.70)의 필요도가 가장 낮았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 감성지능역량의 필요도가 높았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의 필요도가 높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게 나타난 점은 치과위생사 대상의 연구(이선미 등, 2020)와 같은 결과이다. 두 직업군 모두 내원하는 고객 및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직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글로벌역량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의사소통역량의 필요도가 높은 것은 안경사의 의사소통역량이 최종

처방까지 이루어지는 자각적 굴절검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궁극적으로 영업이익과 연결된다는 김세진 등(2020)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는 협업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관리역량의 필요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안경사의 협업역량의 필요도(4.31±0.73)가 재학생(4.01±0.88)보다 높았으며 의사소통역량의 필요도도 안경사(4.46±0.74)가 재학생(4.23±0.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원관리역량 필요도는 재학생(4.02±0.81)이 안경사(3.70±0.9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협업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관리역량의 필요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안경원 현장에서의 실제 필요성이 안경사에게 반영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안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성별에 따라서는, 글로벌역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13±0.72)가 여성(4.02±0.5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창의역량은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남성 4.20±0.75, 여성 3.84±0.60)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p<0.05).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24±0.6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4.08±0.51), 30대(4.05±0.53), 50대 이상(3.94±0.9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의사소통역량(4.50±0.57)의 필요도가, 30대는 직업윤리역량(4.25±0.84)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의사소통역량(4.64±0.56)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의사소통역량(4.31±1.04)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 협업역량이 높고 자원관리역량과 글로벌역량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15±0.64)가 남학생(3.92±0.71)보다 높았으며 협업역량(남학생 3.71±1.00, 여학생 4.18±0.76)과 대인관계역량(남학생 3.82±0.79, 여학생 4.14±0.69), 자기관리 및 개발역량(남학생 3.90±0.81, 여학생 4.22±0.67)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는 안경사의 경우 남성의 필요도가 더 높았던 것과 대비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학생은 직업윤리역량(4.12±0.84)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역량(4.08±0.84)이었으며 글로벌역량(3.84±0.81)의 필요도가 낮았다. 여학생은 의사소통역량(4.32±0.7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윤리역량(4.30±0.76)이었으며 글로벌역량(3.93±0.83)의 필요도가 낮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역량의 필요도가 높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학생의 기초핵심역량 필요도(4.22±0.62)가 가장 높았으며 3학년(4.16±0.67), 1학년(3.84±0.68) 순으로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1학년은 직업윤리역량(4.01±0.83)과 의사소통역량(4.01±0.82)의 필요도가 높았고 2학년은 직업윤리역량(4.41±0.76)과 의사소통역량(4.41±0.74)의 필요도가 높았다. 3학년도 직업윤리역량(4.32±0.73)과 의사소통역량(4.31±0.72)의 필요도가 높아 학년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역량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4) 기초핵심역량 영역별 필요도의 상관관계

안경사의 기초핵심역량 영역별 필요도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p<0.001) 이는 기초핵심역량 필요도가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는 대인관계역량과 복합적 문제해결역량 사이에서 나타났다(r=79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경사와 재학생의 안경사 직무에 대한 이해 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기초핵심역량 필요도가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여 대학 기초핵심역량 교육의 기대효과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대학적응을 잘할수록 핵심역량과 자기조절학습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핵심역량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손원빈, 2018)가 있다. 이를 참고로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파악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체 안경사와 재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 론 -

안경사 99명과 재학생 110명, 총 209명을 대상으로 안경사가 갖춰야 할 기초핵심역량의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안경사와 재학생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직업윤리역량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고 글로벌역량의 필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사와 재학생의 안경사 직무에 대한 이해 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초핵심역량 필요도 영역들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p < 0.001$) 기초핵심역량 필요도가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여 대학 기초핵심역량 교육의 기대효과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역량과 복합적 문제해결역량 사이의 가장 강한 상관관계($r = 0.791$)는 대인관계역량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역량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대학적응을 잘할수록 핵심역량과 자기조절학습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핵심역량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손원빈, 2018)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참고로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경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역량 등 기초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안경사에게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파악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체 안경사와 재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경쟁력 있는 전문 안경사 양성과 안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핵심역량의 필요도를 반영한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논문 원문보기 :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

<http://www.koos.or.kr> 또는 <https://koos.jams.or.kr>